

인천시,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 활동비

인천시가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시는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드림체크카드'를 신설하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하는 등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올해 일자리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930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44억원 ▲예비창업자 지원 드림칩 조성 34억원 ▲창업성장 펀드사업 20억원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사업과 인천 청년공간 유유지기 운영,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에

한 달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

올해부터 청년 정책 대폭 강화

148억원 등이다.

신규 사업인 '드림체크카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실질적인 취업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드림체크카드는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급하며 구직과 관련된 활동에 사용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최종 학년 기준 졸업 2년이 경과한 만 19

세~39세 미만 미취업 청년이다.

또 시는 높은 생활비, 대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목돈미련의 기회 제공을 위해 '드림 For 청년통장'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드림 For 청년통장 지원대상은 시 소재 중소기업·중견 제조 기업 2년 이상 청년재직자로 계약연봉 2400만원 이하인 39세 정규직근로자가 해

당된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매월 10만원씩 3년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 360만원에 시에서 640만원을 지원해 3년 후 1000만원목돈미련이 가능하도록 생애 1회 지원한다.

이 사업들은 4월 이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자 공고와 본격적인 시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2019년 1학기 학자금 대출분부터 재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년인터뷰



박원순 서울시장 "시시때때 변하는 지지율보다 개혁과제 수행 더 중요"

요즘 박원순 시장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내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 중 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으로 보인다.

서울시장으로 시정을 마음껏 펼쳐 보려고 하면 모든 것이 '내선후보'의 계산된 행보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다른 대선후보들과 비교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시원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다.

지난 10일 뉴시스와 신년인터

뷰에서 박 시장은 "지지율보다 시시때때 변하는 지지율보다 개혁과제들을 충실히 수행해 시민 삶과 도시의 미래를 바꾸고 미래와 역사의 평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율은 시시때때로 변화한다. 무엇보다 3선 서울 시장은 누구도 걸지 않은 첫 길이다. 그 막중한 책임감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다"며 "7년간 축적해 온 서울의 혁신 그 기반 위에서 시민 삶 속에 스며들고 시민 삶을 실제로 바꿔줄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만큼 박 시장을 향해 '고인물'이라고 지적이 이들도 있다.

박 시장은 "뉴욕, 파리, 런던 같은 선진도시도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았다"며 "11년간 재임

한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8년 연임의 켄 리빙스턴 전 런던 시장 등 한 시장이 10년 가까이 꾸준히 혁신하고 부지런 노력과 성과가 쌓여 세계 최고의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 7년간 혁신의 토대를 탄탄히 다져온 서울이야말로 단절을 넘어 연결, 확장, 진화를 이뤄내야 할 시점"이라며 "내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도 그래서 나온 화두다"

박원순 '고인물' 지적에 블룸버그·리빙스턴 전 시장 언급

정무당파 측근들 '6층 사람들' 지칭에 "조금더 신경쓰겠다"

뷰에서 박 시장은 이에 대해 "당장의 지지율보다 우리 사회 현안과 개혁과제들을 충실히 수행해 시민 삶과 도시의 미래를 바꾸고 미래와 역사의 평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율은 시시때때로 변화한다. 무엇보다 3선 서울 시장은 누구도 걸지 않은 첫 길이다. 그 막중한 책임감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다"며 "7년간 축적해 온 서울의 혁신 그 기반 위에서 시민 삶 속에 스며들고 시민 삶을 실제로 바꿔줄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만큼 박 시장을 향해 '고인물'이라고 지적이 이들도 있다.

박 시장은 "뉴욕, 파리, 런던 같은 선진도시도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았다"며 "11년간 재임

한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8년 연임의 켄 리빙스턴 전 런던 시장 등 한 시장이 10년 가까이 꾸준히 혁신하고 부지런 노력과 성과가 쌓여 세계 최고의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 7년간 혁신의 토대를 탄탄히 다져온 서울이야말로 단절을 넘어 연결, 확장, 진화를 이뤄내야 할 시점"이라며 "내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도 그래서 나온 화두다"

박 시장은 "뉴욕, 파리, 런던 같은 선진도시도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았다"며 "11년간 재임

한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8년 연임의 켄 리빙스턴 전 런던 시장 등 한 시장이 10년 가까이 꾸준히 혁신하고 부지런 노력과 성과가 쌓여 세계 최고의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지역공감·미래성장·정문희팀
湖南新聞
전편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시흥보건소에 설치된 홍역의심 선별진료소. 대구 경북에 이어 경기 시흥에서 홍역 확진자가 나타났다. 15일 오전 경기 시흥시 시흥보건소에 설치된 홍역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관계자가 의심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고 있다.

최악의 미세먼지 이렇게 대비... "외출자제·마스크·청결"

연일 최악의 미세먼지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일단 야외활동을 줄이는 게 가장 좋다.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을 최소화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을 줄이고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역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할 때는 마스크는 필수다. 마스크 착용 시 공기 누설을 체크하고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해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반

드시 '코리아필터(KF)' 등급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KF80은 평균크기 0.6μm의 미세먼지를 80% 이상, KF94는 평균크기 0.4μm의 미세먼지를 94% 이상을 차단해 준다.

외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온몸을 구석구석 씻는다. 특히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반드시 씻는다. 양치도 무조건 해야 한다.

실내 있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실내 공기질 관리에도 힘써야 한다.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해 적절히 환기를 한다. 불청소로 실내먼지도 제거하는 것이 좋다.

집에서는 물, 과일, 야채를 섭취한다.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민약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서울시 전 지역에서 2006년 12월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 이상 경유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시행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수도권의 등록 차량 총중량 2.5 미만 차량, 장애인 차량, 저공해 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공해 자동차로 개조한 차량 등)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